

2009. 11. 2 제226호

세계도시동향

목 차

문화 · 디자인

1. 문화와 전통의 다양성을 위해 ‘다문화 달력’ 제작 (베를린)
2. 빈 상점 외벽에 예술품 전시 (미국 팜스프링스市)
3. ‘유네스코 창의도시’ 추진 (상하이)

산업 · 경제

4. 미래과학 전시열차 ‘미래 탐험’ 전국 순회 (독일)

건강 · 복지

5.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편의점 · 할인점 규제 (로스앤젤레스)
6. ‘가슴으로 기르는 아이’ 위탁부모 프로그램 시행 (뉴욕)
7. 시민 건강을 위해 식료품점을 늘리는 ‘Fresh Program’ 시행 (뉴욕)
8. 노인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침범 방지 캠페인 실시 (상파울루市)
9. 비행 청소년 갱생보호를 위한 가이드북 제작 (도쿄)
10. 초등 · 중학생에게 금융 · 경제 교육 실시 (도쿄)

목 차

행정·재정

11. 과태료 체납 해결 프로그램 시행 (뉴욕)

도시환경

12. 사유지의 녹지 보전 지원 (도쿄)
13. 대규모 수질개선 사업 시행 (뉴욕)
14. 건물 외벽에 낙서할 수 없도록 코팅 의무화 (로스앤젤레스)
15. 지역 단위 친환경발전소를 활용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 (런던)
16. 건물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강화한 법령 시행 (독일)
17. 도시농지 보전을 위한 지자체 포럼 개최 (도쿄)
18. 휴대용 GPS를 이용해 '그린 투어리즘' 붐 조성 (일본 후쿠시마縣)

도시교통

19. 4가지 형태의 대여자전거 시범 운행 (런던)
20.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교통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 (런던)

도시계획·주택

21. 도시경관을 해치는 건축공사 금지 추진 (상파울루市)
22. 세계 최고 도시로 만들기 위한 '빅 시티 플랜' 발표 (런던)
23. 중심상업지역(CBD) 확대·발전 계획 마련 (북경)

1. 문화와 전통의 다양성을 위해 ‘다문화 달력’ 제작 (베를린)

○ 베를린市 통합·이민부는 각 문화·종교권의 주요 축제일과 기념일, 국경일 등을 표기한 ‘다문화 달력 2010’을 제작함.

- 베를린은 역사적으로 볼 때 시민의 1/4이 이민자 출신인 다문화 사회임.
 - 달력을 잘 활용하면 자신이 종교개혁의 날을 성스럽게 보낼 때 다른 사람은 할로윈 축제로 즐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고, 라마단 기간에 이슬람교도 고객에게 점심약속을 제안하는 실수를 피할 수 있음.
- A3 크기로 만들어 학교, 사무실, 가정에서 누구나 한 눈에 한 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市 통합·이민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 받거나 한 부당 870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음.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9/10/08/141736/index.html)

(www.berlin.de/lb/intmig/publikationen/kalender/index.html)

>>> 전문가 검토의견

- 베를린市는 다양한 지역 출신의 외국인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서로가 상대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다문화 달력을 제작하여 포용의 도시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음.
 - 이는 작은 아이디어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외국인에 대한 테러와 차별대우 등 독일인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 서울시는 2007년부터 글로벌정책을 강화해 2008년 글로벌센터를 개소하고 외국인이 서울에 정착하여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지원함.

- 이러한 프로그램은 외국인이 서울에 사는 데 도움이 되고 있음. 하지만 시민과 외국인 간에 상호 관심과 배려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문화 이해’ 프로그램은 전무한 편임.
- 현재 글로벌센터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달력은 서울시 행사와 기타 문화행사 정보만 서비스하고 있으며, 글로벌 빌리지 프로그램에서는 서울시와 일부 국가 간의 문화교류 프로그램만 제공하고 있음.
- 서울은 현재 130여 개 국가 출신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글로벌 도시로, 다양한 글로벌 문화가 축적된 상태임. 시민과 다양한 지역 출신의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포용하며 교류하기 위해서는 ‘서울 지구촌 문화정보 달력’을 제작하여 인터넷에 올리고 인쇄물로 만들어 배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홍석기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skhong@sdi.re.kr)

2. 빈 상점 외벽에 예술품 전시 (미국 팜스프링스市)

- 미국 캘리포니아주 팜스프링스市는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도심의 많은 상점이 비게 되자 도시환경이 황폐해질 것을 우려해 빈 상가건물의 외벽이나 주변에 그림이나 포스터, 미술작품을 설치할 계획임.
- 市는 이를 위해 지역 예술가를 초청해 미술작품을 제작하고 작품 제작·설치 비용을 부담할 예정임.
 - 과거 어느 때보다 도심 상가건물의 공실률이 높아 관광객에게 도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어 그림, 조각, 할리우드 스타 사진 등을 전시해 관광객의 흥미를 유발할 계획임.

(<http://latimesblogs.latimes.com/lanow/2009/09/ever-image-conscious-palm-spring-wants-to-fill-vacant-storefronts-with-art.html>)

3. '유네스코 창의도시' 추진 (상하이)

- 상하이市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를 신청해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2009년 10월 13일 밝힘.
 -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각 도시의 문화자산과 창의력에 기초해 문화를 육성하고 상호 협력으로 문화 다양성을 증진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유네스코 사업임. 市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디자인·문화 창의도시로서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목적으로 추진해왔음.
 - '10년 내 아시아 디자인수도, 20년 내 세계 디자인수도'란 목표를 세우고 2004년부터 디자인 연구개발, 건축, 패션, 문화예술, 컨설팅 분야를 창의 산업으로 집중 육성함.
 - 2009년 현재 창의산업 단지가 81개에 이르고 4000여 개 기업이 총면적 250만 제곱미터 부지에 입주해 세제 감면과 투자 지원 혜택을 받고 있음.
 - 2010년에는 창의산업 단지가 100여 개로 늘어나고 2012년에는 단지 총생산규모가 500억 위안(약 8조 802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http://www3.xinhuanet.com/chinanews/2009-10/14/content_17935480.htm)

한 줄 뉴스

● 독일

- 겨울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09년 10월 한 달간 자동차 라이트 무료점검 행사 지원

● 도쿄

- 청소년이 사이버범죄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대책 강구

4. 미래과학 전시열차 ‘미래 탐험’ 전국 순회 (독일)

○ 2009년 4월 23일 베를린에서 출발한 미래과학 전시열차인 ‘미래 탐험’이 10월 9일 베를린의 이웃도시인 포츠담市에 도착함.

- 독일 연방정부는 과학 분야의 지식 체험과 정보 전달이 특정 공간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국을 순회하는 미래과학 전시관을 기획함.
 - 독일의 대표적인 과학연구소인 막스 플랑크 연구소가 주도하고 대학과 에너지·환경·생명공학·정보 및 우주공학 분야 연구기관이 참여하며 연방 교육부가 1300만 유로(약 220억 원)를 지원하고 지멘스, 바이엘, 폭스바겐 등 대기업이 후원함.
- 12량짜리 열차의 내부는 나노와 생명공학, 두뇌와 컴퓨터, 디지털사회, 영양 섭취와 농업 경영, 기후변화와 에너지 등의 주제로 각각 나눠 미래과학을 체험할 수 있도록 꾸밈.
 - 미래과학의 트렌드와 전망을 보여주는 설치물과 자료뿐 아니라 관람객이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10~15년 후 과학 기술이 우리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음.
 - 학생을 위해 따로 설치된 ‘발견과 경이’ 공간에서는 학생이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지도함.
- 전시열차는 지금까지 독일의 47개 도시를 순회하였고 정차하는 곳마다 매일 약 15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성과를 올림.
 - 11월 22일까지 63개 도시를 순회하고 베를린으로 돌아와 전국 투어를 마치게 됨.



(www.bmbf.de/press/2691.php)

(www.forschungsexpedition.de/generator/wj2009/de/03__Veranstaltungen/02__Der__20Ausstellungszug.html)

한 줄 뉴스

● 런던

- 대기 질 향상을 위해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청정차량 운행 촉진계획 마련

● 프랑크푸르트

- '전통과 혁신'이란 주제로 전 세계 7400여 개 출판사가 참가한 제61회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을 2009년 10월 14~18일 개최

5.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편의점 · 할인점 규제 (로스앤젤레스)

○ 로스앤젤레스 市의회는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취급하지 않는 편의점이나 할인점의 경우 다른 곳과의 거리가 최소 1.5마일(약 2.4km) 이상이 되어야 허가를 내주고 신선한 야채와 채소를 파는 곳은 이 규제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편의점 · 할인점 규제안을 심의 중임.

- 市는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는 市 남부지역 주민의 비만율이 높아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입점을 잠정적으로 금지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함. 이에 시민단체는 편의점 · 할인점 간의 거리를 조정해 이들의 수를 제한하자고 주장해왔음.

· 사탕이나 과자, 설탕이 많이 함유된 음료수를 주로 파는 할인점이나 편의점의 밀집도가 비만율과 상당한 관계가 있으며, 市 남부지역에 상당수의 편의점 밀집해 있다는 연구조사 결과가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음.

(www.latimes.com/business/la-fi-stores12-2009oct12,0,2469583.story?track=rss)

>>> 전문가 검토의견

- 로스앤젤레스 市 저소득층 주민의 비만문제는 영양이 풍부하고 열량이 낮은 음식보다 값이 싼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식품을 많이 섭취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한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개업을 원천 봉쇄하거나 편의점 수를 규제하는 방안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정부 차원에서 식생활 개선과 규칙적인 운동 참여 등 체계적인 체중 관리가 가능한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우리 사회의 저소득층 비만도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저소득층 비만을 방치하면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을 야기하여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발생 시키므로 서울시 차원에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 보건복지가족부의 저소득층 비만어린이 체중관리 프로그램 지원사업처럼 서울시에서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비만관리 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노은이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eyn@sdi.re.kr)

6. ‘가슴으로 기르는 아이’ 위탁부모 프로그램 시행 (뉴욕)

○ 뉴욕市 아동복지국은 입양 프로그램과 더불어 부모의 불화나 건강,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일시적으로 위험에 처한 아동과 위탁부모를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을 시행 중임.

- ‘The Foster’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이 사업은 어려움에 처한 아동에게 안정적이고 화목한 가정을, 시민에게는 봉사과 사랑을 실천하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데 목적이 있음.

- 위탁부모 신청자는 오리엔테이션에서 위탁부모의 역할과 올바른 태도를 교육받은 뒤 위탁아동을 맡기 위한 실무교육을 8~10주간 이수해야 비로소 위탁부모 자격을 갖추게 됨.
- 교육을 모두 이수한 시민은 市에서 연결해준 위탁아동과 장기(1년)나 단기(2~3개월)로 위탁가정 결연을 맺음.

- 市는 이 사업이 단순히 오갈 데 없는 아동을 맡기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위탁부모를 자원한 시민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훈련해 친부모와 다른 없는 사랑과 안정감을 아동에게 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고 밝힘.

(www.nyc.gov/html/acs/html/become_parent/foster_care_process.shtml)

(www.nyc.gov/html/acs/html/become_parent/become_parent.shtml)

7. 시민 건강을 위해 식료품점을 늘리는 ‘Fresh Program’ 시행 (뉴욕)

○ 뉴욕市는 2009년 5월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식료품점을 늘리고 구매 편의를 위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Fresh Program’을 시행

한다고 발표함.

- 이 프로그램의 취지는 시민, 특히 저소득층 주민이 식료품을 비롯한 생필품을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있음.

○ 市는 2009년 9월 Fresh Program을 실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조닝(Zoning) 계획을 발표함.

- 이 계획의 주요 내용은 기존 조닝법에 따른 상업지 및 주차장 계획의 예외구역을 區마다 지정해 식료품점과 이와 관련된 기반시설을 둘 수 있도록 한 것임.

(www.nyc.gov/html/dcp/pdf/cpc/090412.pdf)

8. 노인·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침범 방지 캠페인 실시 (상파울루市)

○ 브라질 상파울루市는 일반차량이 노인 및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막기 위해 10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쇼핑센터는 주차장의 3%를 노인·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함. 앞으로 市는 주차장의 5%까지 늘릴 계획임.

- 이에 따라 대형 쇼핑센터에서는 일반차량이 노인·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도록 하는 캠페인을 시작함.

- 도심의 14개 쇼핑센터는 홍보 전단을 배포하고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내 방송을 실시하며 주차 위반자에게는 벌금을 부과함.

(www.estadao.com.br/estadaodehoje/20091006/not_imp446504,0.php)

9. 비행 청소년 갱생보호를 위한 가이드북 제작 (도쿄)

○ 도쿄都는 2006년부터 비행 청소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사회 지원사업의 추진과정과 성과를 모아 2007년부터 「소년 지원 가이드북」을 제작함.

- 특히 2009년 판은 2008년 문을 연 ‘비행 소년 회복 지원 원스톱센터’에서 갱생보호에 관여하는 관계자에게 지침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수록함.
 - 갱생보호 관계자뿐 아니라 BBS(Big Brothers and Sisters, 비행 청소년의 형이나 누나, 언니가 되어 고민을 같이 해결하는 등 비행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자원봉사단체) 회원에게도 배부함.
- 都是 2개 지구를 지정하여 ‘청소년 회복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함. 이 가이드북을 활용하면 비행 청소년의 진학, 취업, 생활 전반에 관한 상담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9/10/20ja6100.htm)

10. 초등·중학생에게 금융·경제 교육 실시 (도쿄)

- 도쿄都 다중채무 문제 대책협의회는 초등·중학생을 대상으로 금융·경제 교육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함.
 - 미래의 소비자인 어린이가 어릴 때부터 건전한 경제관념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개발한 교재를 활용하여 경제교육을 실시함.
 - 많은 청소년이 어린 나이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스스로 돈을 벌어 사용하는 과정에서 금융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특히 청소년이 감당하기 힘든 다중채무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돈의 가치와 사용법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함.
 - 돈은 무엇인가, 용돈 사용법, 미성년자가 계약한 경우 취소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초등학교 3학년 교재와 계약은 무엇인가, 신용카드 사기와 대처법 등의 내용을 담은 중학교 2학년 교재 등 2종류의 교재가 있음.
 - 2009년 4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대상학교를 점점 확대해 나갈 계획임.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9/10/20ja9700.htm)

11. 과태료 체납 해결 프로그램 시행 (뉴욕)

- 뉴욕시는 사업체와 주택 소유주의 과태료·범칙금 체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 체납자는 과태료와 범칙금을 납부하면 체납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가산금이나 연체료,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됨. 만일 위반사항이 시정 가능한 상태라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 시정 조치하여야 함.
- 프로그램 참여대상은 과태료·범칙금이 부과된 사업체와 개인임.
 - 보도 위생관리 불량, 부적절한 분리수거, 보행 방해물 설치, 홍보 전단 무단 게시, 무허가 노점상 등으로 단속에 적발된 사례가 구제받을 수 있음.
- 시는 체납자가 과태료·범칙금을 납부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할 경우 모든 행정적 규제를 풀 것이라고 밝힘.
 - 일반적으로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지 않거나 정해진 기간에 소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범칙금 체납상태로 넘어감.
 - 체납자는 2009년 9월 21일부터 12월 21일까지 구제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음.

(www.nyc.gov/html/dof/html/jump/ecb_res.shtml)

한 줄 뉴스

- **뉴욕**
 - 5개 區 경제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2009년 3/4분기 신규 고용이 전년 동기 대비 60% 증가
- **브라질**
 - 재활용제품의 공산품세를 면제하는 등 환경 관련 업체에 세제상의 혜택 제공

12. 사유지의 녹지 보전 지원 (도쿄)

○ 도쿄都는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사유지의 녹지도 점점 감소하고 있어 區·市·町·村과 연계하여 ‘녹지 확보 종합방침’을 마련하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오고 있음.

- 都는 사유지 녹지 보전대책을 강화하고 녹지 확보 종합방침을 개정할 목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98%가 사유지의 녹지 보전이 필요하다고 답하였고, 68%는 시민의 협조를 얻어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답함.
 - 사유지 유형별 대책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9%는 사유림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녹지 보전을 위한 지원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답하였고, 91%가 시민농원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함.

(www.metro.tokyo.jp/INET/CHOUSA/2009/10/60ja9100.htm)

>>> 전문가 검토의견

- 도쿄都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도시녹화를 위해 사유지 녹화가 중요하고 사유림 보존을 위한 지원제도가 필요함을 보여줌.
 - 설문조사에서는 사유지 녹지 보전이 필요하다고 답하지만 개인 이익과 결부되면 대부분 타 용도로의 이용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므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의 경우도 사유지의 녹지 보전을 위해 조례로 녹지 활용 계약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고 자치구별로 이를 추진하고 있음.
 - 공공에서 제공하는 녹화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의 자발적인 녹화를 유도하여 도시를 푸르게 변모하는 것이 바람직함. 사유지 소유주의 동의와 협력을 얻기 위해서는 공공에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 이들을 설득

해야 함.

- 사유지 녹화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하거나 홍보하고 시민단체 등을 활용해 코디네이터를 발굴·지원함으로써 민간영역에서의 녹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김원주 도시기반연구본부 연구위원(wjkim@sdi.re.kr)

13. 대규모 수질개선 사업 시행 (뉴욕)

- 뉴욕市는 총 1억 5000만 달러(약 179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브루클린 지역의 고와누스 운하 수질개선 사업에 착수함.
 - 市는 대규모 수질정화 사업으로 고와누스 운하 시설을 개선하고 악취와 같은 고질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특히 운하와 연결된 하수처리시설과 수로를 전면 개선해 도시환경의 질을 높일 계획임.
 - 이번 수질개선 사업은 ‘뉴욕 2030 종합계획’의 일부분으로, 앞으로 브루클린 지역뿐 아니라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질·수로 개선 장기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임.

(www.nyc.gov/html/planyc2030/html/plan/water_quality.shtml)

(www.nyc.gov/portal/site/nycgov/)

14. 건물 외벽에 낙서할 수 없도록 코팅 의무화 (로스앤젤레스)

- 로스앤젤레스 市의회는 건물 외벽에 낙서하는 사람이 계속 늘자 신축건물을 포함한 모든 건물 외벽에 스프레이 낙서(Graffiti)를 할 수 없는 재질로 코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
 - 이 조례안은 높이가 최소 9피트(약 2.7미터) 이하인 건물의 외벽과 출입문에 낙서가 불가능한 세라믹 타일 등으로 코팅하도록 규정함.

- 조례안은 원칙적으로 모든 건물에 적용되지만 낙서가 있으면 7일 이내에 지우겠다는 서약서에 사인한 건물주 소유 건물은 제외됨. 만일 정해진 기간에 낙서를 지우지 못할 경우에는 550달러(약 6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www.nbclosangeles.com/around-town/real-estate/LA-Might-Raise-the-Graffiti-Shield-62574982.html)

15. 지역 단위 친환경발전소를 활용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 (런던)

- 런던시는 지역 단위의 친환경발전소를 중심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세부계획을 마련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뿐 아니라 친환경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절약을 추진함.
 - 시는 이를 위해 런던 개발청과 런던 퍼스트(London First, 런던의 경제 활성화 등을 추진하는 기관), 런던 내 자치구와 파트너십을 형성함.
 - 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을 선도하기 위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지역 단위 중심의 에너지 생산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공공과 민간의 전망 제시
 - 런던 개발청에 ‘지역 에너지센터’를 설치해 자문활동을 펼치고 다양한 정보 제공
 - 인터넷을 기반으로 열(熱) 지도를 제작해 이해당사자에게 지역 단위 중심의 에너지 생산 정보 제공
 - 지역 단위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시 유관기관에서 사용하도록 장려
-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3958)

16. 건물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강화한 법령 시행 (독일)

- 독일 연방정부는 건물부문의 에너지 사용량을 기존보다 30% 줄일 것을 규정한 에너지 절약 개정 법령을 2009년 10월부터 시행함.
 - 유럽연합의 지침에 따라 개정된 에너지 절약 법령은 주택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구체화하고 주택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도를 도입함.
 - 앞으로 건물주는 건물 난방과 온수에 드는 에너지의 양을 기존보다 30% 줄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함.
 - 1965년 이전에 지은 건물을 개조하는 경우 건물주는 이 에너지 사용량 기준을 지켜야 하고, 개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시설을 지붕 등에 설치해야 함.

(www.bmvbs.de/-,302.7567/Energieeinsparverordnung-EnEV.htm)

(www.bmvbs.de/-,302.1099348/doc.htm)

17. 도시농지 보전을 위한 지자체 포럼 개최 (도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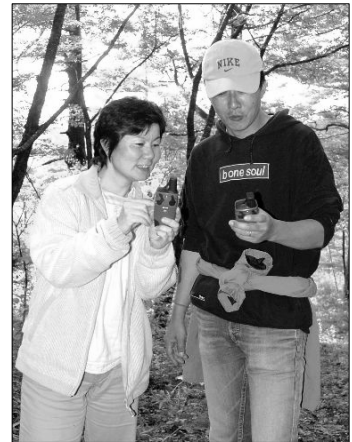
- 도쿄都 내의 도시농지가 최근 10년간 급속도로 감소함에 따라 38개 자치단체 (10개 區, 26개 市, 2개 町)로 구성된 도시농지 보전 추진 지자체협의회가 都와 공동으로 도시농지 보전을 위한 지자체 포럼을 2009년 10월 20일 옴.
 - 이번 지자체 포럼에서는 도시농지 보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도시농지의 보전을 위한 법령 정비’란 주제로 초청 강연도 실시함.
 - 도시농지는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도시민에게 제공할 뿐 아니라 열섬효과를 완화하고 녹지경관을 보전하며 주민 간 교류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함.

(www.metro.tokyo.jp/INET/EVENT/2009/10/21jad200.htm)

18. 휴대용 GPS를 이용해 ‘그린 투어리즘’ 붐 조성 (일본 후쿠시마縣)

○ 일본 후쿠시마縣 가와우치村에 있는 ‘그린 투어리즘 연구회’는 휴대용 GPS를 관광 이벤트에 활용하여 마을 살리기를 모색하는 방안을 제안함.

- 연구회는 2009년 10월 12일 버섯을 채집하기 위해 방문한 관광객에게 휴대용 GPS를 나누어주고 이를 이용해 산책코스에 숨겨놓은 보물을 찾도록 함(사진 참조). 보물을 찾은 사람에게는 지방 특산품을 선물함.



- 연구회는 보물찾기 행사 외에도 마을 살리기 사업에 GPS를 활용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함.

· 관광명소나 쇼핑 안내 정보를 담은 GPS를 관광객에게 빌려주고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할 때 이용하도록 함.

(요미우리신문, 2009. 10. 16)

한 줄 뉴스

● 브라질 상파울루市

- 2009년 10월 한 달간 ‘장밋빛 10월’이란 유방암 조기검진 캠페인 실시

● 브라질 상파울루州

- 짜에페(Tiete) 강변 9개 도시를 따라 성당과 유적, 고옥 등을 탐방할 수 있는 역사관광코스 개발

19. 4가지 형태의 대여자전거 시범 운행 (런던)

○ 런던시는 런던 내에 조성하는 자전거 전용 고속도로(Cycle Superhighway)를 2010년 여름부터 달리게 될 4가지 형태의 자전거를 소개하고 이를 시범 운행해 보는 ‘자전거 전시회’를 도심에서 엮.

- 시는 시민이 빌려 탈 수 있는 자전거 6000대를 도심에 배치할 계획임.
 - 이 자전거 대여정책은 자전거 전용 고속도로와 함께 자전거 이용률을 2025년까지 2009년 대비 4배 늘리기 위한 시 교통국의 자전거 이용 혁신방안임.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3900)

>>> 전문가 검토의견

- 런던시 자전거 전용 고속도로는 ‘런던 사이클 액션 플랜’의 일환으로 2025년까지 도심에 총 900km의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려는 프로그램의 일부임.
 - 시는 자전거 이용 확산을 위해 자전거 전용도로 확장과 더불어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제작에 힘써온 결과 이번에 4가지 형태의 대여자전거를 선정하게 됨.
- 서울시는 현재 도심 일부를 대상으로 88km의 자전거 전용 순환도로망을 계획하는 등 자전거도로 확충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다양한 자전거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경사지를 쉽게 오를 수 있는 노약자용 전기 자전거나 생활형 일반 자전거 등 서울형 자전거 디자인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개인 소유 개념에 가까운 중·장기 저비용 유료 대여 자전거, 시간·구역 단위로 이용하는 단기 무료 대여 자전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그린교통 체계를 구축하여 서울을 친환경 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함.

/홍석기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skhong@sdi.re.kr)

20.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교통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 (런던)

- 런던시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교통시스템 개선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청소년·노약자·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무료·할인요금 정책을 계속 유지할 계획임.
- 이에 따라 전체 버스 이용객의 40%는 무료·할인요금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게 됨.
- 시는 운전자가 혼잡통행료를 더욱 손쉽게 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혼잡통행료 납부용 계좌도 도입할 계획임.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3978)

도시계획·주택

21. 도시경관을 해치는 건축공사 금지 추진 (상파울루시)

- 브라질 상파울루시는 시민이 도시경관을 마음껏 감상하도록 하고 녹색환경도 보전하기 위해 역사적인 장소나 녹색부지를 전망하는 데 방해되는 건축공사를 금지할 방침임.
- 시는 이를 위해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도시경관을 해치는 공사를 제한하는 조례안을 만들어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임.
- 현재 상파울루에는 역사 건축물을 대상으로 신·증축 공사를 금지하고 건물 규모와 건축부지의 용도·위치에 따라 건축형식을 제한하는 조례가 시행 중임.

(www.destakjornal.com.br/readContent.aspx?id=13,46707)

22. 세계 최고 도시로 만들기 위한 ‘빅 시티 플랜’ 발표 (런던)

- 런던시는 런던을 세계 최고의 빅 시티(Best Big City on Earth)로 만들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담은 ‘런던 플랜’ 수정안을 최근 발표함. 런던 플랜은 2031년을 목표로 경제, 사회, 환경, 교통 분야의 통합전략을 담고 있음.
 - 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②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며, ③ 인구 증가에 적절히 대응하고, ④ 서민주택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며, ⑤ 다양하고 안전한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 경제 성장과 고용 증대, 도시 재생을 위한 적정지역 모색, 도심부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일자리 창출 등 현안에 대한 정책방안도 다루고 있음.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3919)

한 줄 뉴스

● 상하이

- 중국 전통주와 세계 100여 개의 술을 소개한 ‘세계 술 축제’를 2009년 9월 28일~10월 6일 개최
- 엑스포를 맞이해 안데르센 동화를 주제로 한 대규모 어린이 테마파크를 2010년 5월 개장할 예정
- 2010 엑스포 전시장에 입장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활용한 ‘모바일 입장권’을 2009년 11월부터 판매

23. 중심상업지역(CBD) 확대·발전 계획 마련 (북경)

- 북경市 중심상업지역(CBD)의 도시계획 및 발전 포럼이 2009년 10월 14일 세계 500대 기업, 유럽 및 미국 상공회의소, 독일 공상총회 및 CBD 금융상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의 전문가와 학자가 참석한 가운데 차오양區에서 열림.
 - 참석자들은 거시경제 관점에서 CBD의 기여도와 영향, 도시계획과 지속가능한 발전, 교통 등을 주제로 토론을 벌임.
 - 10년 전에 조성하기 시작한 북경의 CBD는 현재 1만 5000개 기업과 기관이 입주해 있는데, 이는 市 전체의 70%에 달하는 규모임.
 - 이 중 세계 500대 기업이 130개이고 외국계 금융기관은 203개임. 국제 금융의 중심지이자 문화·매스미디어산업과 서비스산업 클러스터 등이 조성되어 있음.
 - 외국계 금융기관의 중국 지역본부가 많이 입주하자 市는 CBD를 동쪽으로 더 확대할 계획임.
 - 앞으로 세계적인 하이테크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저탄소사회 실현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힘.

(北京日报, 2009. 10. 15)